



열여덟번째 이야기

동남아 테이블의 특징은?



첫째, 연령의 폭이 크다. 5세부터 70까지.

둘째, 절대로 결석할 수 없는 BEE에 헌신한 얼굴이 많다.

가장 중요한 셋째는 BEE 기도모임 8개의 테이블 중 출석인원이 가장 많아 왕소금 BEE 본부의 커피를 3번이나 갈취했다.

동남아테이블에는 김경은 리더를 중심으로 두 분의 목회자와 한 분의 전도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업을 가진 헌신자들로 이루어졌다. 선교지로는 베트남(김소망, 신사랑, 도희), 필리핀, 태국(송형관 협력선교사)을 섬기고 있다. 베트남의 저력은 대단하다. 117회의 세미나

나, 1645명의 학생!! 이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BEE KOREA가 공산권 베트남에서 이뤄낸 성과이다. 이제 2017년 BEE KOREA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북베트남 전역(27개현) 교회 지도자들을 BEE 프로그램으로 양육하여 ‘헌신된 사역자를 재생산하게 한다.’라는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방주교회에서 창립한 방주신학교가 BEE 교재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테이블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희 권사님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그 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권사님은 나이를 잊어버리셨다. 아프다고 하셨는데 카타르에 가 계신다. 또 어느새 필리핀에 가서서 세미나를 하고 계신다. 그 분 앞에서 우리의 사역은 부끄러울 따름이다. 우리의 영원한 ‘언니’이시다.

주권욱 목사님은 자신을 변화시킨 성경말씀(갈6:7-8, 벰전1:15, 단12:3)같이 언제나 올곧게 살고 더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신다. 사실 그분의 현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60여년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강의도 했지만 이제는 어두운 저편에 있는 출소자들을 위한 쉼터로 꽃을 피우고 계신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일대일과 BEE 세미나로 하나님을 전하지만 그들의 출소 후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목사님은 그런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6개월 동안 새벽과 저녁 두 차례의 기도 회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쉼터를 마련하셔서 사모님까지도 출소자들의 식사를 준비하시며 영.육의 양식을 제공하시고 있다. 힘들지만 이 사역으로 인하여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훈련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신다.



자신이 마가와 닮았다는 김익수 목사님: 요셉을 본받아 신실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고 느헤미야처럼 충성된 일꾼을 본받고 싶다고 하신다. 하지만 자신은 선교여행 중 도중하차한 마가처럼 도중하차한 적도 있지만 BEE를 통하여 회복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앞으로 사도행전 1:8 처럼 선교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또한 에스라 7:10 을 좌우명으로 삼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하셨다.

양완식 전도사님: 방주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와 필리핀 방주교회 신학교에 BEE 세미나를 전담하고 계신다. 또한 ‘군사저널’에 매달 기고도 하고 계시는 능력 출중하신 분이다. 며칠 전에는 중국 모 대학 초청으로 사드에 대해 브리핑도 하고 오셨다. BEE 내부에서도 핵심적인 분이시라 우리 민간인과는 사뭇 다르지 않나 싶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똑같다.

가나안을 꿈꾸는 이용구 집사님: 30여년간 이어온 회계사 퇴직을 9월에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준비 중이시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들을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의 방식과 안락함에 게으름을 피울까 두렵다고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다. BEE를 통해 갖게 된 비전은 역시 말씀이다.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일차적인 비전이다. 다음은 삶 속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바울처럼 천막이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계사는 천막 만드는 자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니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만나가 필요하니 광야생활 중에 이것을 활용하게 될지는 모르나 가나안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소망을 드러내셨다.

허서윤(자녀: 윤정민, 수민) 집사님: 고린도후서 5:21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하신다. 요즘은 자신보다 두 아이의 신앙이 더 큰 것 같다고 하신다.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엄마를 따라 나와도 이들 남매는 다툼이 없다. 정민이를 보고 있으면 아이인가 싶다. 요즘은 듬직하게 뒤에 앉아 어른들의 기도에 참여하며 간사님처럼 앉아 있다. 아이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이 어떨지 자못 부담도 된다. 또한 아이의 기도도 궁금하다. 엄마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김미화(심수정, 혜은 7세) 자매님: 중국어, 일어, 영어 4개국어가 능통한 동시통역사이다. 능력도 출중한데 자녀 양육 또한 대단하다. 토요일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에 있다. 미화 자매를 보면 유대인 교육이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

김명신 집사님: 권사 같은 집사님이다. 매사 긍정적이며 열심이다. 이 분 또한 부천 BEE가 낳은 인재이다. 약간의 일어와 약간의 영어도 가능하시다. 요즘 ‘약간의’를 떼어내려 영어 공부에 한창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해 본다.

이규인 권사님: 역시 부천의 인재이다. 평생을 영어교사로 보내시고 정년퇴직을 했지만 로마서 FA로 섬기는 요즘이 가장 떨리고 행복하다고 하신다. 조용조용 나직하게 하시는 말씀에는 강한 힘이 들어있다. 권사님께 세미나를 들으면 아마도 게으름 피우는 학생들은 없을 것 같다. 영어로 세미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인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이 오면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모습이 너무 겸손해 보이셨다.

김숙자 권사님: 이승전 집사님의 부인이다. 지금은 방콕에 있는 남편의 권유로 한국어 교사 준비 중이시다. 이승전 집사님께서 퇴직 전에 ‘5년 후에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바늘에 실 따라 가듯 권사님의 앞날은 정해진 것 같다. 방콕에 BEE 세미나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김수미 권사님: 부천과 양재, 남양주를 마다 않고 세미나에 열중하시더니 지금은 잠시 나약한 아들을 위해서 요즘 남양주에 ‘요거 에스프레소’ 가게를 오픈하셨다. 아들 용건이가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세미나에 전념하실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문혜란 간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5:3). 이 말씀이 생각나는 간사님! 소외된 이웃을 향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간사님입니다.

이현숙 집사님: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일과 사역 중 사역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신다.

강부순 장로님: BEE에 오면 처음 만나 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분이 다. 커다란 목소리에 놀리지 않은 BEE 식구들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첫인상 속에 숨어있는 부드러운 귀여움은 시간이 가면서 숨길 수가 없다. 요즘 강 장로님의 무대는 조문상 선교사님 못지 않게 넓다.

김천봉 집사님: ‘찾아온 사랑을 찾아’를 담당하고 계신다. 기도모임 때 지각하는 사람은 김천봉 집사님을 볼 수 없다. 하시는 일의 특성상 토요일이 가장 바쁨에도 불구하고 BEE 기도모임을 찍고 가신다.



이정분 집사님: 동남아테이블의 부리더이다. 특별히 온비아 과정을 두 번이나 거쳐 BEE 식구가 되셨다. BEE의 높은 문턱을 넘어오니 ‘정직하고 바른 BEE, 삶을 도전하는 말씀에 정신없이 이끌려 가네요’ 하시며 행복하시다고 하신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일깨운다고 하신다.

김종량 집사님: 아내(이정분 집사)를 따라 나와 제일 수지 맞으신 분이다. 요즘 네팔을 다녀 오신 후 많은 은혜 가운데 계신다. ”BEE를 통해서 복음을 깨우쳐 가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신다.

이상으로 동남아테이블 식구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 드립니다. (글:김경은,편집:이경주)

BEE 소식

- 6.12~18일 인도네시아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6. 22~23일 "찾아온 사랑을 찾아"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